

민주노총 3만여 조합원

“윤 파면 · 내란 척결에 모든 것을 걸자”

- 15일 민주노총 ‘내란세력 청산 사회대개혁 쟁취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 양경수 위원장 “응원받는 민주노총이 모든 것을 걸 때”

전국에서 모인 민주노총 조합원 3만여명이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할 것인지는 앞으로 일주일 이 광장을 누가 채우는가 앞으로 일주일 광장의 외침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윤석열 파면과 내란 세력 척결 투쟁의 모든 것을 걸자”고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15일 ‘3.15 내란세력 청산! 사회대개혁 쟁취!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이 외쳤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2년 6개월간, 아니 어쩌면 80여 년간 이 땅의 노동자들은 착취당하고 탄압당해 왔다. 그것을 바꾸기 위한 투쟁을 우리가 일궈 왔다”면서 “윤석열이 웃으며 구치소를 걸어 나온 바로 지금이 민주노총이 가장 앞장에서 투쟁해야 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지금 100만의 시민들이 광화문으로 모여들고 있다. 이제 우리 민주노총이 답해야 할 때다. 많은 시민들이 민주노총 힘내라 민주노총 응원한다 격려하고 환호해 주셨다”며 “지금 싸우자. 응원받는 민주노총이 자랑스러운 민주노총이 부끄럽지 않게 모든 것을 걸고 싸우자”고 호소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윤용신 수석부지부장은 “노동자의 삶은 옅터칼 고공농성이 433일을, 세종호텔 해고자들이 10미터 높이 고농성을 한다”며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 윤석열, 김건희의 국가권력 사유화로 국민들이 갈라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윤석열 파면을 결정해 이 혼란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건설노조 김규우 기계분과장은 “윤석열은 경찰, 검찰을 동원하여 특수고용 노동자를 탄압했다. 건설노조는 건폭이라 하며 조합원 2천여명을 소환하고 조합원 40명을 구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법 2,3조 개정이 특수고용 노동자 스스로 단결해 권리를 찾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오종현 지부장은 “윤석열 내란정권과 내란의 힘은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악, 자동삭감장치로 연금을 대폭 삭감하는 연금개악을 추진했다”라면서 “소득대체율 50%,

사용자 국가책임 회복으로 노후가 두렵지 않은 국민연금,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동십자각까지 행진후 17시 개최하는 비상행동 집회 참가할 예정이다.

[붙임]

1. 대회 개요
2.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발언문
3.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윤용신 수석부지부장
4.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조 김규우 기계분과장
5.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오종현 지부장

[첨부] 대회 사진

[붙임] 1. 대회개요

1. 개요

- 일시 : 2025.3.15(토) 15:00
- 장소 : 서울 남대문로 (을지로입구역 앞 무대)
- 행진 : 광교 → 종각역 사거리 → 우정국로 → 동십자각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취지

- 민주노총은 단위사업장대표자 결의대회와 1박 2일 농성을 통해 전국적 투쟁을 선포한 바 있음.
윤석열 석방이라는 비상식이 난무하는 지금, 내란세력 완전 척결하기 벼랑 끝에 있는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민주노총이 맨 앞에서 온몸으로 싸우고자 함

3. 진행 순서

시간	내용	
14:50~15:00	여는 공연	청년노동자 공연
15:00~15:05	개회선언	
15:05~15:08	기조영상	
15:08~15:13	대회사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15:13~15:16	발언1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윤용신 수석부지부장
15:16~15:20	발언2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조 김규우 기계분과장
15:20~15:28	문화공연1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울동패 한결 울동 공연
15:28~15:31	발언3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오종현 지부장
15:31~15:38	문화공연2	공공운수노조 세종문화회관지부 강남합창단지회
15:38~15:40	폐회	구호 제창, 행진 보내기
15:40~16:00	행진	광교 → 종각역 사거리 → 우정국로 → 동십자각

- 사전대회
 - 건설산업연맹 : 13:30 본무대 대회장(을지로 입구역)
 - 공공운수노조 : 14:00 종로타워 앞
 - 금속노조 : 14:00 서울고용노동청
 - 서비스연맹 : 14:00 세종호텔 앞

[붙임] 2.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발언문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공동의장들과 함께 오늘로 8일째 단식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입니다. 힘차게 투쟁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드릴 말씀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윤석열이 왜 파면되어야 하는지, 내란 세력은 왜 척결되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 6개월간, 아니 어쩌면 80여 년간 이 땅의 노동자들은 착취당하고 탄압당해 왔습니다. 그것을 바꾸기 위한 투쟁을 우리가 일궈 왔습니다.

오늘 3월 15일 전국 각지에서 100만의 시민들이 광화문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1시간 전까지 그 곳에 머물다 왔습니다. 이미 수많은 시민들이 광화문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민주노총이 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2월 3일 이후 많은 시민들이 민주노총 멋지다 민주노총 힘내라 민주노총 응원한다 격려하고 환호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어려울 때마다, 노동자, 민중이 고통 받을 때마다 우리가 가장 앞장서 가장 헌신적으로 투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웃으며 구치소를 걸어 나온 바로 지금이 민주노총이 가장 앞장에서 투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동지들 동지들께 제안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 주면 윤석열이 파면될 것이라 예측합니다. 그러나 장담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이 구치소를 걸어 나오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이 그 밤에 계엄을 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이 그리고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 세력들이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할 것인지는 앞으로 일주일 이 광장을 누가 채우는가 앞으로 일주일 광장의 외침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지들 정말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윤석열 파면과 내란 세력 척결 투쟁의 모든 것을 겁니다. 윤석열이 돌아온다면 저들을 척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내일은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양회동 열사가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장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절절하게 느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싸웁시다. 응원받는 민주노총이 자랑스러운 민주노총이 부끄럽지 않게 모든 것을 걸고 싸웁시다. 그리고 당당하게 우리는 우리답게 싸웠노라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만든 재상은 나아졌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시다.

동지들 정말 함께 투쟁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붙임] 3.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윤용신 수석부지부장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오직 김건희의 국가권력 사유화로 국민들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3월 내란 사태 이후 무려 석 달 동안 대한민국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내전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말합니다. 이러한 사태를 제공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며 법치를 파괴하는 자가 어떻게 대통령입니까?

“대한민국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우리는 민주공화국 국민이고 노동자입니다.

노동자의 삶은 윗티칼 동지들이 고공농성 433일이 넘어가고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는 호텔 앞 10미터 높이의 구조물에 올라 고공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골목 상가들은 폐업되고 있으며 자영업자는 97년 외환위기 590만 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시기 570만 명보다 줄어든 최고의 폐업을 기록하며 550만 명으로 경제는 박살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부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경제가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혼란 끝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신속하게 윤석열에게 해고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제 침략으로 35년 간 수탈과 고통을 당했고 해방되었습니다. 부모님들 시대,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지금 2025년,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대한민국이 더 이상 분열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습니다. 동지들, 이 자리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 투쟁은 윤석열 파면과 내란 세력 완전 청산, 사회적 대전환을 위한 민주노총 노동 중심 민주주의를 실현해 가는 투쟁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길에 다 같이 힘차게 투쟁에 나섭시다. 투쟁!!

[붙임] 4.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조 김규우 기계분과장

덤프, 레미콘 등을 운전하며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는 특수고용노동자입니다.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장이자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김규우입니다. 동지들에게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지난 3월 7일과 8일,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는 공동투쟁을 진행하였습니다. 화물차량과 건설기계 그리고 노동조합의 방송차들이 목포,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행진하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에 가한 계엄과도 같은 탄압을 알리고,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윤석열은 경찰, 검찰을 동원하여 노동자들을 탄압하였습니다. 안전운임제를 쟁취하기 위한 화물연대의 정당한 파업에 대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파업을 중단시키고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건설노조는 건폭이 되었습니다. 2,000여명을 소환하고, 20여 차례 압수수색을 가했으며 40여명이 구속되었습니다.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는 새로운 탄압을 당했습니다. 바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한 탄압입니다. 25년간 노동조합으로 활동해온 역사를 부정하며 사업자단체라고 명명하고, 사업자단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고 제재를 가해왔습니다. 노조 활동이 시정명령을 받았고 수 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당당한 노동자로서 활동해왔음에도 여전히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이 부당하다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강사, 골프장캐디, 커서비스기사, 셔틀버스기사, 요양보호사 등과 함께 20년 넘게 특고대책회의를 해왔습니다. 또한 현재는 배달라이더, 웹툰작가 등 수많은 직종에서 플랫폼노동자들이 생기고 이들 또한 노동조합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외면하고, 노조할 권리를 방기하였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노동약자로서 보호해야 할 대상과 아닌 자로 나누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단결하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직종이 무엇이든, 일감을 어떻게 받든, 계약형태가 무엇이든, 노동의 대가가 무엇이든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이 당당히 노동 3권을 향유하고 단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최근 다시 발의되었습니다. 모든 내용이 중요하지만 특히 제2조 제1항의 근로자 정의개념 확대가 이번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결하여 권리를 찾고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단결하고 연대하여 싸워나가겠습니다. 투쟁!

[붙임] 5.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오종현 지부장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동지 여러분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200만원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0.67%에 불과합니다. 연금 수급자 대다수인 70%가 월 60만원 미만이고, 절반이 월 40만원 미만입니다. 국민연금 신규수급자 평균액은 65만원에 불과합니다. 정직한 노동의 결과가 노후 한 달을 버티기 턱없이 부족한 연금입니다.

국가가 강제로 압류까지 하면서 걷는 국민연금이라면, 시간가치를 반영한 정당한 연금, 빈곤을 예방하는 연금을 지급해야 마땅합니다.

윤석열 내란정권과 내란의힘은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악, 자동삭감장치로 연금을 대폭 삭감하는 연금개악을 추진했습니다. 국민연금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여 전 국민의 노후를 자본에 복속시키고, 죽을 때까지 착취하겠다는 연금내란입니다.

윤석열의 내란은 실패했지만, 내란세력의 연금개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탄핵 국면에 민주당은 시민의 선택에 한참 어긋나는 소득대체율 43%로 내란의힘에게 계속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내란세력 연금개악의 얼룩과 흔적을 지워내야 합니다.

국회 연금특위에서 시민들이 한 달 넘게 숙의하며 내린 시민공론화 결과는 보험료를 13%로 더 낼 테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자, 다른 민주주의 국가처럼 크레딧, 보험료 지원으로 가입이 어려운 시민들의 가입을 지원하자,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묻고, 국가도 연금의 재정적 책임을 분담하자는 것입니다.

그 동안 노동자는 더 내라 하여 더 내고, 늦게 받으라하여 늦게 받고, 덜 받으라 하여 덜 받았습니다. 이제는 사용자와 국가도 역할을 해야 합니다.

시민이 선택한 소득대체율 50%, 가입기간 지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사용자책임, 국가책임의 회복으로 노후가 두렵지 않은 국민연금,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연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붙임] 2. 무대위치, 행진경로

